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4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1. 영광의 왕께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자비하신 주님, 하지를 지난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6월의 끝자락에 설 때마다 이명증처럼 홀로 가슴앓이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 이후 5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강토에는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이산 가족, 납북자 가족, 이데올로기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숨죽인 채 살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의 한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픔이 서린 이 땅을 치유하고,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이 사람들을 갈라놓지 않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롬8:33-34	인도자
----------------	----------------	-----

♠ 교 독 문	42. 마태 5장	다함께
---------------	-----------------	-----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	-----

대표기도	I. 김서현 선생	II. 방문성 장로
------------	-----------	------------

응 답 송	찬양대
-------------	-----

찬 송	469.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다함께
-----------	----------------------------	-----

성경봉독	I. 눅1:1-4	인도자
------------	-----------------	-----

II. 마5:43-48	하현철 권사
--------------------	--------

찬 양	찬양대
-----------	-----

말 씬	I. 역사복음	이성운전도사
-----------	---------------	--------

II. 평화, 멀지만 가야 할 길	김기석 목사
--------------------------	--------

거듭기도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515. 뜻없이 무릎 꿇는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세상에 평화의 씨를 뿌리신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 부름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 께 : 아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부르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육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는 주님, 우리 속에 하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환경 강좌	성서의 평화 : 김기석 목사
강사 : 양재성 목사	기도 : 김창원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곽권희 집사 한상익 장로	인도자 권미정 집사

6월	영접위원	한상익	김정길	박석희	최숙화	김금순	조항미
	헌금위원	방문성	김근중	안길상	이순정	박혜경	박홍재

흰 종이의 숨결

어릴 적 아버지는 두력발 두둑에 닳나무를 길렀습니다. 가을이 되면 닳나무 껍질을 벗겨 말려두었다가 제지공장에 팔았습니다. 제지공장을 거쳐 온 닳나무 껍질은 하얀 창호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친 닳나무 껍질이 제지공의 손을 거쳐 하얀 창호지로 변한다는 게 무척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어릴 적에도 우리 집 문살에 발라놓은 순백의 창호지를 보며 ‘나무의 영혼’ 같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나무의 영혼 같은 순백의 종이를 보면, 창조주가 우리에게 선물하신 시간의 여백을 떠올립니다. 제지공들이 펄프를 물에 풀어 만들어 놓은 하얀 백지, 그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새로운 시간의 상징입니다. 그 시간은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영혼의 빈칸과도 같습니다. 그 영혼의 빈칸에 우리는 먹물을 찍어 우리의 생을 써넣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그 빈칸에 창조적 생을 기록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그 빈칸에 아무 것도 기록하지 못한 채 비워 두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얽매인다든지 오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하여 ‘지금 이 순간’을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이는 자기 영혼의 빈칸을 슬한 얼룩으로 더럽히거나 하겠지요.

나의 영혼은 그것이 창조되던 그 날만큼이나 젊습니다.

아니, 훨씬 더 젊습니다.

실로,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젊습니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젊어지지 못한다면,

나는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동지를 트는 사람은

영원한 현재에 동지를 트는 사람입니다.

거기서는, 사람이 결코 늙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것이 현재이고 모든 것이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자기 영혼의 빈칸을 의식하고 사는 이는 창조적 젊음을 살 수 있습니다. 하얀 창호지처럼 여백으로 주어지는 시간을 새로운 삶을 살라는 창조주의 신호로 받아들일 테니까요. 그것은 곧 ‘영원한 현재’에 등지를 트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매 순간이 태초太初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우리는 순간마다 태초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어주셨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내면에도 창조의 영靈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창조의 영과 더불어 사는 일을 은유적으로 ‘하나님 안에 등지를 트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등지를 트는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젊음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가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불순물을 걸러내고 나무의 영혼으로 거듭난 순백의 종이처럼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를 정화하여 맑은 영혼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거룩한 새 창조의 일군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비우는 일입니다. 자기를 비울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창조의 영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 창조주가 일하실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틈, 그것은 신성한 창조의 여백입니다.

닥나무가 변해 빛어진 순백의 종이는 자기 몸에 담길 떡 냄새 배인 문향文香을 그리워합니다. 그 향기는 영원한 젊음을 누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합일에서 피어나는 향기이며, 이웃과의 화목에서 피어나는 향기입니다.

--고진하, <<나무명상>>, 2007, kmc.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함께 지내다 보면, 개개인의 결함이나 약점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해 불평을 하거나 비판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편이 더 큰 기쁨이 될까요?

그 네

축 늘어진 줄 끝에 매달려서
그네는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주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감고 맥없이 왔다갔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리듬에 맞춰서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는 넓다란 박람회장을 거닐 듯이 길거리를 지나다가
인생의 바람에 불려서 흥청대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희희낙락 웃어가며 잠깐의 쾌락에 골몰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찌푸린 얼굴로, 험뜯고 조롱하는 풍조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늘어뜨려 주시는 줄을 꼭 붙잡고
몸은 강하게, 근육은 단단하게 버티어
그들 스스로가 택한 방향을 그들 인생에 새겨 넣기를.

당신이 이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되는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살아가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셸 파스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옥신 박병구 김춘려 권호천 배삼순 김준호 광혜자 김혜권 박병구
 박창운 허정윤 이선림 이한림 김명희 박정숙 정완수 김재광 조관행
 홍선희 양재성 권미숙

월정헌금:

김성자 김영순 김정애 김 극 박병구 박어진 이광섭 하정석 이명희
 하현철 최성애 이은자

감사헌금:

김재흥 최희영 한상익 정영선 송의섭 신윤정 오정숙 문홍일 이미혜
 김보미 이한림 김명희 박창운 허정윤 강순배 최숙화 박정숙 김용진
 무명2

생일감사헌금: 이재구 김 극 정현주

캄보디아 우물헌금:

이호원 이인섭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윤여민 김용길 최영혜 배근수 (누계: 74,345,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차혜심	송임회	김정섭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정경례	박홍엽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진정애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김진경	김명순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최희영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문복순	김경수
시온	박효선	허정윤	임미심	김희우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최희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유영남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이형숙	김필순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안홍숙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정옥영	백혜숙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김수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이증자	배삼순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6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2. **환경 강좌** : 오늘 오후 집회는 중구용산지방 환경 위원회가 주관하는 환경 강좌로 모입니다. 양재성 목사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3. **교사 교육** : 교회학교 교사 교육이 오후 환경 강좌 모임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냉난방헌금** : 다음 주일에는 냉난방헌금을 봉헌합니다. 정성껏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세미나실** : 새로 마련된 세미나실에 들어갈 집기가 필요합니다. 의자와 탁자, 에어컨 등입니다. 물품을 봉헌하실 분들은 목회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선교회 월례회** : 다음 주일 오후는 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최초의 열심을 회복하셔서 귀한 배움과 친교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7. **신앙실천** :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57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늘 기도하십시오.

* 식당 봉사 : 엠마오 속

토요주방봉사(30일) : 이형숙 문영혜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유중희(생일) 김용원(생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